

광주·전남 국회의원 19명 후원금 총 27억4827만원 ... 박주선 1위

중앙선거위 '2013년 후원금 모금 현황' 공개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1억6965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주당 배기운 의원(나주·화순)은 가장 적은 5695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공개한 '201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19명의 후원금은 27억4827만원으로 의원 1인당 후원금은 1억446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주선 의원은 19명 의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고 이어 민주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이 1억6406만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순천·곡성)이 1억574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 중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의 후원금이 1억573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시울) 1억4959만원,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 1억4928만원 이었다.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응섭 의원(광산구울)이 1억4987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전체 국회의원 298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381억9200만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2천816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후원

박주선 1억6965만원

배기운 5695만원 최하위

이석형 전 함평군수

안철수에 400만원 보내

1인당 평균 '여소야대'

새누리 1억2694만원

민주당은 1억2912만원

회를 두지 않은 새누리당 황인자(비례대표), 민주당 최민희(비례대표) 의원은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당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여당인

■ 2013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상위 10위 (단위: 원)

순위	의원명	소속정당	지역구	모금액
1	박원석	정의당	비례	195,171,074
2	심상정	정의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194,030,850
3	유기홍	민주당	서울 관악구 갑	193,970,000
4	이상직	민주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을	180,909,025
5	김영주	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갑	177,693,001
6	김윤덕	민주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갑	174,702,000
7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170,430,010
8	박주선	무소속	광주 동구	169,650,000
9	이목희	민주당	서울 금천구	167,500,000
10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 을	166,975,008

새누리당이 1억2694만원, 제1야당인 민주당이 1억2912만원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근소하게 앞서며 이른바 '여당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석수 5석의 정의당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5599만원이었다.

■ 2013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하위 10위 (단위: 원)

순위	의원명	소속정당	지역구	모금액
1	현영희	무소속	비례	-
2	이해찬	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13,500,000
3	이재영	새누리당	비례	21,550,000
4	도종환	민주당	비례	23,620,000
5	임수경	민주당	비례	25,230,997
6	민현주	새누리당	비례	26,900,010
7	정두언	새누리당	서울 서대문구 을	28,900,000
8	이지스민	새누리당	비례	30,500,000
9	안덕수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 을	31,680,000
10	김세연	새누리당	부산 금정구	32,430,100

후원금 1위는 1억9517만원을 모은 정의당 박원석(비례대표) 의원이 차지했고, 꼴찌는 '0원'을 기록한 무소속 현영희 전 의원이었다. 현 전 의원은 공천 비리 혐의로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 전 의원을 제외하면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선거가 없었던 지난해 모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한도를 초과한 광주·전남 의원은 8명이었다.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우선 선관위가 고의성 여부를 조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 등 법적 제재를 취하게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다음 해로 넘기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형준 전 화순군수와 유재신 전 광주광역시 의원은 각 500만원씩,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400만원의 후원금을 무소속 안철수에 의원에게 낸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광주 시민공감단' 발대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 내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실에서 '새정치 광주 시민공감단' 발대식이 열렸다. 시민공감단원들이 불편, 부당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생활정치, 신뢰정치 등을 이루자는 취지의 선언문을 읽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박주선·강동원 의원 새정치 측 신당 창준위 받기인 참여

조영택·홍기훈 전 의원도

무소속 박주선, 강동원 의원이 새정치연합 측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13일 "박주선·강동원 의원과 조영택·홍기훈 전 의원이 발기인으로 합류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날 "송호창 의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해달라고 직접 전화해 요청했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와 정치 혁신을 목표 하면서 야권이 통합되니 가까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도 추천하고 새정치연합에서

도 추천하는데 그 둘이 통합해 신당이 만들어지는 만큼 어느 쪽에서 추천하느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300여명씩 모집해 오는 1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신당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

두고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최근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양쪽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서울시의회의원 5명도 역시 통합신당 발기인으로 합류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신당추진단의 각 분과 업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해 총괄지원단을 설치하고 김효석 공동위원장을 총괄위원장에, 이태규 새정치 기획팀장을 총괄지원단장에 각각 선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 예비후보 등록 보류

"의원직 연쇄 사태 우려" 민주 중앙당 요청 따라

"가까운 시일 내 국회의장에 사퇴서 수리요청 계획"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3일 전남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보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오전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자 기탁금까지 납부했으나 중앙당이 예비후보 등록보류를 간곡히 요청해 후보 등록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도중 김한길 대표와 노용래 사무총장 등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다른 의원들도 등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원직 연쇄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등록 보류를 요청했다"며 "특히 노 총장은 저에게 '어제 일(저의

의원직 사퇴)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면 당에 부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저는 중앙당의 요청을 일단 받아들여 뒤 전남지사 선거에 더욱 전념할 작정"이라며 "가까운 시기에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해 의원직 사퇴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지사 선거에 올인하고자 국회의원 사퇴 의사에는 변함이 없고, 급주중 당 최고위원들에게 사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또 이날 내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철수하고 세비를 반납하는 등 국회의원 사퇴와 관련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안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연광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13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삼성전자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이견 회 회장이 곧바로 수리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 의안과에 의원직 사퇴서가 제출했다고 급히 처리할 건박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아직 사퇴서에 대해 논의할 바도 없으며 천천히 처리할 생각"이라며 "일단, 이낙연 의원 본인이 직접 와서 사퇴에 대해 얘기하면 들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직 사퇴는 국회 회기 중인 경우에는 본회의의결로, 비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장의결재로 처리된다. 따라서 비회기인 3월 중에는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면 사퇴서는 즉각 처리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통합신당 광주시당 18일 창당대회

위원장 임내현·이근우 거론

통합신당의 광주시당 창당대회가 오는 18일께 예정되는 등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시당위원장 등 조직 구성이 주목된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통합신당은 오는 16일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광주를 포함한 5개

시·도당 창당대회에 이어, 오는 2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당 창당대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은 광주시당 창당준비를 위해 민주당에선 광주시당 이진 사무처장과 새정치연합측에선 송태종 전 광주시의원 등 각각 2명씩을 선임해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또한, 통합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은 5대5 원정에 따라 공동체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동위원장로는 민주당에선 임내현 현 광주시당 위원장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관사출신 변호사인 이근우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창당준비단 공동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삼학소주

직매장위탁관리 및 대리점 모집

모집부문 : 직매장 위탁관리 및 대리점(시/군/구 각 1개점)

성원에 힘입어 새롭게 부활한 그때그시절 추억의 술 삼학소주가 인도네시아 수출계약체결을 자축하며 국내판매를 함께할 참신한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관련업 유경험자 우대)

상담전화 02)865-3301~2
삼학양조(주)

한국 최고의 청정지역 지리산 청학골의 지하 200m 천연 맥반석 암반수로 빚고 국내 유일 녹차추출물 100% 함유로 뒤끝이 깨끗한 소주!!